생각이 끊어질 때 禪에 든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② 일 없는 사람(無事人)

〈임제록〉에서 내세우는 말 중에서 '일 없는 사람(無事人)' 은 모든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다.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해 마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임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일 없는 사람' 이 되라고 한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서 천하를 다니되 도깨비 귀신에게 홀리지 말아야 한다. 일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조작하지 말라. 오직 평소의 생활 그대로 하라. 그대들이 밖을 향하고 딴 집을 찾아다니면서 수단을 부려봐야 그르칠 뿐이다. 부처를 구하려 하나 부처는 이름뿐이며 말일 뿐이다."

또 유명한 〈임제어록〉의 명언인 '어디서든지 주인이 되라.' 는 법문이 설해진 대목이 있다.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은 모두 다 참된 곳이다."

이 말의 뜻을 음미해 보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참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라는 것이다. 또, 경계에 말려들지 말라는 당부의 말도 이어져 나온다.

"어떤 경계에 부딪쳐도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설사 묵은 습기와 무간지옥에 들어갈 5가지 죄업이 있다 하여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마음의 본체를 설명하는 법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마음의 작용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발에 있을 때는 걸어 다닌다. 본래 이 하나의 정밀하고 밝은 것(一精明心)이 나누어져 우리 몸의 6가지 부분과 합해졌을 뿐이다.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든지 해탈이다."

'감변(勘辨)' 장에는 선문답을 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감변이란 서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불법에 대한 안목을 점검 확인한다는 뜻이다.

임제 스님의 스승인 황벽 스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반두(飯頭 · 밥을 짓는 소임)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 하는가?"

"대중들의 밥을 지을 쌀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두 섬 다섯 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이때 황벽이 주장자로 내리쳤다.

쌀 고르던 스님이 이 이야기를 임제 스님에게 했다.

임제는 "내가 저 노화상을 점검해 봐야겠어."

마침 임제 스님이 황벽 스님 곁에 갔을 때 황벽 스님이 이 이야기를 또 임제에게 말했다. 임제 스님이 듣고 "반두는 불법을 모르는군요. 스님께서 그가 깨닫도록 꼭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제가 물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왜 내일 다시 한 번 더 먹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임제가 말했다. "내일을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당장 먹어야지요." 하고는 손뼉을 쳤다.

황벽 스님이 말했다. "이런 미친놈이 또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임제 스님이 바로 할을 하고 나갔다.

임제 스님이 어느 날 보화(普化)스님과 함께 어느 신도 집에 가 점심 공양을 함께 하게 되었다. 임제 스님이 물었다.

"한 터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에 수미산을 거두어들인다고 한 것은 신통묘용인가 아니면 본래 그러한 것인가?"

그러자 보화 스님이 밥상을 걷어찼다.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임제의 말에 보화가 "이곳이 어떤 곳인데 거칠다 말다 하는가?" 하였다.

선(禪)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상식은 생각이 따라갈 수가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격외도리(格外道理)는 생각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끊어질 때 선(禪)에 들어간다고 한다.

〈조계종 고시원장〉

'아미타불'은 無量光佛 · 無量壽佛



세상 속 경전읽기

② 서방극락교주 아미타불

볼테르(Voltaire)가 1752년에 발표한 독창적인 공상과학 단편소설 〈미크로메가스(Micromégas)〉는, 별 시리우스(Sirius)의 한 위성에 사는 청년 미크로메가스가 주인공이다. 그가 쓴 과학논문이 이단으로 몰려 재판에서 800년 추방형을 받자, 그는 견문도 넓힐 겸 우주여행에 나선다. 미크로메가스를 번역하자면 '미세거대(微細巨大)' 로 키가 37Km이고, 그가 살던 행성은 지구 둘레의 약 22백만 배 크기이다. 그곳 사람들의 수명은 1050만년이다.

그는 성간(星間) 여행 중에 토성에 도착하여 토성 학술원 총무와 친구가 된다. 그는 토성 친구와 함께 지구로 여행하기로 한다. 지구에 도착해서 확대경을 통해 바다의 배를 발견하고 집어보니 배안에 극소한 인간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은 지구에서 만난 극소한 존재가 지성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깎은 손톱으로 만든 특수 소리확대 대롱을 통해서 지구인들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빠르게 지구언어를 습득하자, 두 외계인은 인간들과 대화를 해보고 지구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지성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우주가 오로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듣게 되자, 자지러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아는 체 하는 인간에 화가 난 미크로메가스가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는 책을 써서 인간에게 전해주었고, 이 책을 파리의 과학학술원에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 백지 뿐이었다.

광대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지구, 거기에 의탁한 인간이 미세하고 하잘 것 없는 것을 잘 나타낸 단편이다.

〈관무량수경〉에 아미타불의 키는 육십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다. 1유순은 황제가 마차로 하루 동안 행차하는 거리로 30~40리(12~16Km)이고, 나유타는 1011 또는 1012 이다. 지구의 바다에 들어가도 바닷물이 발목밖에 안차는 거대한 미크로메가스도, 아미타불의 키에 비하면 미생물 크기도 안 된다.

〈무량수경〉에 보면,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께서 210억 불국토를 법장비구(法藏比丘)에게 모두 나타내 보여주신다[悉現與之]. 요즈음으로 치면 홀로그램이나 빔 프로젝터 영상으로 보여주신 셈이다. 법장비구는 장차 건설할 극락세계를 위해 5겁(劫)동안 210억 불국토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좋은 점만을 골라 설계를 마친다. 그 후 세자재왕불 앞에서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수행에 돌입한다. 조재영겁(兆載永劫)의 수행을 한 결과 10겁 전에 성불해서 극락정토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서방극락세계는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삼계(三界)를 뛰어넘은 정정취(正定聚)의 세계이다.

법장비구의 별원(別願)인 48대원(大願)은 모든 불보살의 총원(總願)인 사홍서원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삼세 모든 부처님의 서원인 동시에 우주 자체에 내재(內在)한 목적 원인이며, 성불을 지향한 중생의 서원이고 이상인 셈이다. 48원 중 제12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이고, 제13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겁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이다.

아미타불을 번역하면 무량광불(無量光佛)과 무량수불(無量壽佛)이다. 제12원이 성취된, 한량없는 빛의 무량광불이고, 제13원이 성취된, 한정 없는 수명의 무량수불이다.

제18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로, 줄여서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이라 한다. 나무아미타불!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이해의 길 28

'業'은 숙명 아닌 자유의지

새해가 되면 어떤 이들은 점집이나 〈토정비결〉 등의 경로를 통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운세를 점치곤 한다. 운세가 좋게 나오면 기쁘지만, 나쁘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일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이는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있다는 숙명론적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연 정해진 운명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각자의 운명이 정해져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검증의 범위를 넘어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업과 윤회가 운명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은 지적하고 싶다. 업설(業說)은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은 스스로 창조해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팔자고 업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의 상황이 정해진 것처럼 여긴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은 불교의 업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

붓다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ala)라는 인물이 숙명론을 주장하였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육사외도(六師外道) 가운데 사명외도(邪命外道)라고 부른다. 당시 사명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소카 대왕의 비문에 의하면 불교, 자이나교와 함께 독립된 종교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정해진 운명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권하거나 나쁜 일을 금하는 등의 윤리가 이곳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역사는 이들의 교단을 아지비카(Ajivika)라 부른다.

붓다는 모든 것이 정해져있다는 숙명론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사찰에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봐주기도 한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적어도 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은 주어진 운명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다. 불교는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이를 보여주는 붓다의 대표적인 교설인데, 업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몸과 입, 생각(身口意)으로 수많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로 인한 에너지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저장되었다가 다음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업이라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저장되는 무의식의 공간을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 부른다. 쉽게 말하면 업장(業藏), 즉 업의 저장 창고인 셈이다. 이곳에 저장된 업의 에너지가 우리들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술이나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것도 오랫동안 마시고 피웠던 에너지가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저장된 에너지가 금연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금단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랜 흡연으로 인해 받는 업보라 할 것이다.

업보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이나 습관 역시 무의식에 쌓인 업의 흔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흔적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업에는 두텁고 두터운 습기(習氣)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써온 사투리를 고치는 일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업보라면, 미래의 모습 역시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업이란 숙명이 아니라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금단현상을 극복하고 담배를 끊거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투리 발음을 교정한 사람들이 있다.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창조한 주인공들이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저 삶이라는 영화의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그에 따르는 결과도 마땅히 책임지는 것, 업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러한 주인공의 삶에 숙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